

슈워제네거 25년만에 부인과 별거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사직에서 물러난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64)가 25년간 부부의 연을 쌓아온 마리아 슈라이버(56)와 별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슈워제네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향후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으면서 자신들의 4자녀는 함께 부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는 에미상, 피바디상 등을 수상한 미국 NBC 방송의 유명 기자 출신으로, 자신의 모친이 고(故)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이다.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선옥씨 大願賞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선옥(35)씨가 지난 9일 대원상(大願賞)을 수상했다.

양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시부모를 비롯해 다섯 식구를 봉양해 핵가족화의 심화와 가족해체의 현실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효를 적극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원상'은 평소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원을 치하하기 위해 김영진 전 사장이 기부한 사재 5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1994년에 제정한 상이다.

매년 봉사부문과 효부문 대상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주대 이남식 총장 국제미래학회 총장

전주대 이남식 총장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롬 글렌 박사와 함께 국제미래학회 공동 회장에 취임했다.

2007년 창립된 국제미래학회는 미래 산업과 미래 기후변화, 국가 미래 등 앞으로의 세계를 예측, 연구하는 국제적인 전문 학회다.

이남식 총장은 디자인과 인간공학, 창의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새만금위원회 위원, 창조지역특별위원회 위원,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의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새만금 벚꽃아가씨들 군산 홍보 나선다



군산시는 지난 9일 올해 새만금 벚꽃아가씨 진김예진(19) 등 입상자 10명을 군산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관광 홍보대사 위촉은 새만금 개통 1주년을 맞아 군산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외래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김양 등은 앞으로 군산시 각종 축제현장과 국내외 박람회 등을 찾아 군산의 역사, 문화, 관광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서리꽃 녹차’ 만든 이의 정성따라 맛도 다르지요

한국명차 대상 보성 원당제다원 김영옥 대표

‘하이얀 서리꽃을 피워내는 녹차의 맛과 향에 취하다.’ 최근 한국명차 선상대회에서 대상적인 농림수산물부장관상을 수상한 보성 미력면 초당원 원당제다원(대표 김영옥).

원당제다원은 이번 대회에서 ‘서리꽃이 핀 녹차’로 맛과 향기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고 우리 앞에서 최고점을 얻어 대상을 차지했다.

녹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리꽃과 같은 하얀 분꽃이 유독 많이 피어난다는데서 이름 붙은 ‘서리꽃이 핀 녹차’는 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씩 하는 ‘구증구포(九蒸九漚)’ 과정을 거쳤음에도 우려 낼 때 보면 녹차 잎사귀가 원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맑고 투명한 청색빛에 다른 녹차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산뜻한 맛이 난다.

20년 전부터 원당마을 일대 4만2975㎡ 규모의 밭에서 직접 녹차를 재배하고 만들어진 김영옥(여·52) 대표가 명차를 만드는 비법은 ‘정성’이란단.

김 대표는 “차는 기후, 토양, 계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만드는 사람의 마

음자집이 가장 중요하다”며 “누가 만든냐에 따라 똑같은 잎으로 만든 녹차도 그 맛과 향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녹차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어깨너머로 배우는 수준이었다. 남들이 단순히 구증구포가 가장 좋다고 강조해 아홉번 찌고 아홉번 비비고 말려 녹차를 생산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녹차는 본인의 입에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부터 녹차를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다.

보성녹차기술센터에서 녹차를 만드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찾았을 때는 시기에서부터 얻을 뒤는 방법, 차를 우려내는 방법을 달리하

며 연구했다. 더운 날씨에도 큰 화덕 앞에서 찻잎을 찌내고, 비비고 말렸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서리꽃이 핀 녹차’다.

김 대표는 “녹차 특유의 쓸쓸한 맛을 줄여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다”며 “입맛 가득 퍼지는 향기와 함께 서리꽃과 같은 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당제다원은 최근 녹차뿐만 아니라 녹차떡, 녹차김치, 녹차 비빔밥 등 녹차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대중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몇 해전부터는 해마다 중국관광협회에서 차문화를 배우기 위해 직접 찾아오고 있을 정도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한센인들의 고달픈 삶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대전 목원대생들 10년째 소록도서 봉사활동

‘어비어날’인 8일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는 대형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온 270여명의 대전 목원대 학생들로 활기가 넘쳤다.

무박 2일 일정으로 소록도에 온 학생들은 주민잔치를 열어, 주민과 봉사봉사자 등 950인 분의 아침 식사를 마련해 제공하는 한편,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또 떡 800인 분과 생닭 300마리, 홍삼,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치약 등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한 뒤 각 가정을 방문해 동네 어르신들의 식사 수발과 밭뻬 해 드리기, 집안청소, 발발 돕기 등의 노력봉사도 함께 펼쳤다.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늦은 점심을 먹은 학생들은 다시 버스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향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목원대 학생들의 소록도 봉사활동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매년 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아 지난 10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만도 5500여명에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목원대 학생들.

이른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고, 김원배 목원대 총장과 박도봉 총동문회장 등 선·후배들도 후원금을 보냈다.

한 학생은 “편견과 차별 속에 침묵하며 살아온 한센인들의 고달픈 삶과 애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목원대 학생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 소록도 주민들은 지난해 5월 어려운 생활 형편에도 심시일반으로 마련한 300만원의 성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탁하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주지중기자 gju@연합뉴스

동구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잔치



지난 9일 광주시 동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어비어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서 참가자들이 연예인 등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치대 다문화가정 위한 음악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원) 그림사운드 Point & Line(지도교수 김수관 치과대학장)은 최근 치과대학(원) 1층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과 새터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

<조선대 제공>

광주과학고 요양원서 봉사활동



광주과학고(교장 심재택) ‘광과드림봉사회’는 최근 어비어날을 맞아 무등성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과 웃음을 선물했다.

<광주과학고 제공>

올해의 춘향眞에 김준형씨

제81회 춘향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춘향선발대회에서 중앙대 연극영화과 김준형(23)씨가 영예의 미스 춘향 진에 뽑혔다.

김씨는 9일 광한루원 완월정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천주 출신 이진경 양을 제치고 춘향제 최고 미인으로 선 발했다.

김씨는 변 사또에 맞서는 춘향의 모습을 부채춤으로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춘향선발대회는 전국 각지와 미국, 중국 등에서 397여 명이 참가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2명이 본선에 진출해 기량을 겨뤘다.



한편, 이날 결선에서는 선 이진경(19·청주·중앙대 국악과), 미 조은영(23·서울·명지대 휴학), 정·우정상 박세라(23·서울·한국예술종합학교 졸), 조 숙유영(20·이화여대), 현 김라에(22·서울·세종대), 해외동포상 강사 나(23·미국·Virginia Commonwealth U. 졸) 등 총 7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엑스포 성공 위해 여수사랑 노래”

김정민 前여수시의장 자켓앨범 발매

김정민(54) 전 여수시의회의장이 최근 자켓앨범을 내고 본격적인 가수활동과 함께 노래를 통한 지역사랑에 나섰다.

수록곡은 ‘여수 아가씨’와 ‘내사랑 여수’ 등으로, 모두 애환심이 묻어난다.

친분이 두터운 설운도씨가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 노래는 밝고 경쾌하다.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남진, 이용식, 설운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오던 중 이번 설운도씨가 작사 작곡한 지역사랑과 엑스포 성공 열망을 담은 노래를 음반에 실게 된 것이다.



2002년 여수시의회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 여수시의회 건설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마추어 복서 생활을 한 적도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염동철·김선옥씨 장남 철현(을지병원 정형외과 의사)군 김재욱(주식회사 삼진산업 대표이사)·채순옥씨 장녀 샘이양=15일(일) 낮 12시 30분 신양파크호텔 062-228-8000.

▲이태건(시인·송일고 교사)·김태민씨 차남 다니엘군 박만호(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이명자씨 차녀 보람양=14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김진수·김옥순씨 장남 현대군 정갑섭·이수진씨 셋째 승희양=14일(토) 낮 12시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당.

▲염동철(은송어린이집 이사장)·김경순씨 장남 창주군 정남홍·김문심씨 차녀 지인양=14일(토) 낮 12시 30분 리마다 프라자 광주호텔 4

층(그랜드볼룸)

▲이계철·정혜선씨 장남 상훈군 주장안·김영희씨 장녀 윤경양=14일(토) 오전 11시 50분 경북교 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김삼옥(동광고속상무이사)·고경숙(나주초교사)씨 장남 인규(전남대병원 의사)군 김철호·김애인씨 차녀 오영양=15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박철현(전 광주도시공사 사장)·차중덕씨 장남 성근군 차재명·이정수씨 장녀 은영양=15일(일) 오후 2시 한강유람선 여의도 선착장 알파쿠르즈호.

▲박숙자(한화손해보험 서광주지점)씨 차남 김호민(당진 현대제철)군 정홍석·박용숙씨 장녀 회숙양=15일(일) 낮 12시 30분 상무지구 아아리스웨딩홀 1층(베스트홀)

▲김삼옥(동광고속 상무이사)·고

경숙(나주초 교사)씨 장남 인규(전남대학교 의과)군 김철호·김애인씨 차녀 오영(치과과)양=15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김용관(전 송일중·고 교사)·진명희씨 장남 문식군 박경국·조경순씨 장녀 주연양=22일(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성당. 피로연 : 14일(토) 오후 6시 광주 상록대딩홀 4층.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외경 출신 모임=전·외경회 결성. 019-277-0007.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 무료강좌=4월 13일~5월 25일(오전 9~12시) 일신중학교 도서실 지도교수 조정아. 011-610-6589.

▲동신고 12회(회장 이종형) 졸업 30주년 사은회=14일(토) 오후 6시 광주 프라도호텔. 011-9440-2236.

▲광덕고등학교 8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4일(토) 오후 6시 30분 상무지구 힐리데이인 호텔 062-610-7000.

▲광덕고 개교 30주년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15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및 체육관.

▲하남초등학교 39회 동창회(회장 김도열) 한마음 대회=15일(일) 오전 11시 모교 운동장. 010-6772-4714.

중친회

▲범취씨 대중회연합회(회장 최남용) 월례회=11일(수) 오후 6시 30분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062-263-3220, 010-3604-686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외경 출신 모임=전·외경회 결성. 019-277-0007.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 무료강좌=4월 13일~5월 25일(오전 9~12시) 일신중학교 도서실 지도교수 조정아. 011-610-6589.

모집

▲수창초교 야구부 2·3·4학년=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치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비단향꽃무=천연수제삼주, 탈모, 비듬, 두피가려움증, 아토피, 여드름, 건성피부, 천연비누 제조 수강생 시 모집. 062-682-7384.

부음

▲백남례씨 별세 박종범·종업·성례·성숙·성민·성미씨 모친상=발인 12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백수씨 별세 용철·향숙·행란·미용·요정·정희씨 부친상=발인 1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갑진씨 별세 이치영·병태·기성·병구씨 모친상=발인 1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중식씨 별세 두남·현철·선성·병구씨 모친상=발인 11일(수) 송정 장례식장 3호실. 062-941-7103

Advertisement for a funeral service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for Kim Guk-soon (Kim Guk-soon, 84 years old).

Advertisement for a funeral service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for Kim Guk-soon (Kim Guk-soon, 92 years old).